

현대중국어 유의어 의미구분을 위한 도식화 교수법 연구

박 성 하*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도식화를 활용한 문법교육 |
| II. 의미구분을 위한 도식화
교수법 설계 | I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외국어 교육에 있어 유의어(近義詞)의 제시는 어휘량을 늘리는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유의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많은 오류문장을 만들어 내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목표언어의 어휘가 모국어와 반드시 일대일 대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학습대상자의 모국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현대중국어의 유의어에 관한 논문은 주로 2~3가지의 유사 의미항목을 가진 것을 비교 및 분석한 것이 주를 이룬다. 해당논문으로는 박덕준(2008), 박덕준(2015), 박덕준(2016), 신수영(2009), 이희주(2013), 홍연옥(2015), 이희주(2010), 김현철·김지원(2009)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교학적인 측면에서 유의어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해당논문으로는 박재승(2008),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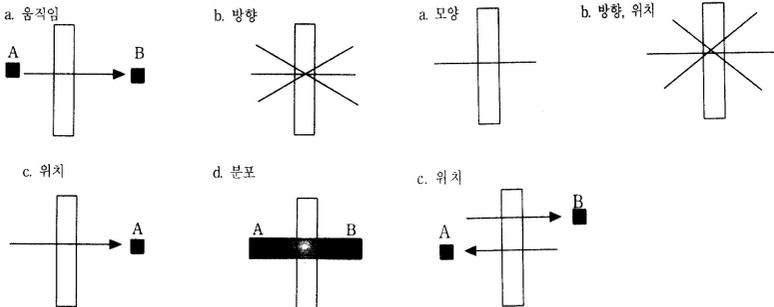
김정필(2013), 章蓉(2014)등이 있다. 박재승(2008)에서는 중국어 능력 평가의 오답분석을 통해 기존 유의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확산 모형(spreading activation model)의 도입을 제안하고 후보군 중에 선택된 하나가 전경(figure)이 되고, 활성화 되지 못한 후보군들은 배경(ground)이 되는 방식의 유의어 교육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 방안은 공기성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중국어 활용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학습자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칫 학습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의어의 직관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김정필(2013)에서는 중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화자가 장소유의어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했으며, 인지언어학의 ‘도상화(圖像化)’를 응용하여 윤곽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의어의 차이점에 대해 도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章蓉(2014)에서는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의 의미 유사도가 높은 것과 한국어로는 그 의미의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예문제시교학법(舉例教學法)’을 제안하였다. 이는 적절한 예문과 비문을 제시함으로써 유의어의 차이점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나,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을 함에 있어 많은 예문까지 함께 흡수해야 하므로 심리적 학습 부담을 줄 수 있다.

현대중국어의 유의어 연구의 대표성을 지니는 것으로는 박덕준·박정구·오문의(2000)과 박덕준(2001)이 있는데, 박덕준·박정구·오문의(2000)에서는 다량의 유의어를 추출하여 실사와 허사로 분류하고 품사별로 의미 및 통사적 특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박덕준(2001)에서도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유의어를 대상으로 의미, 통사, 화용의 세 가지 평면을 모두 고려하여 전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의어 연구는 응당 언어의 전면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유의어 간의 의미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연구에서 밝힌 유의어 간의 차이점을 토대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학의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각적인 자

료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효과적인 이미지 도식화(schematization of image)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식화는 언어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이다. 이를 어휘의 의미 항목 구분에 활용한 것으로는 정은(2003)¹⁾이 있는데, 영어 ‘across’의 품사별 의미구분 및 의미변화를 도식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박수경·조강희(2005)에서는 동사 ‘过’와 ‘过’를 이미지 도식을 통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 논문에서 사용된 도식들은 모두 추상화된 것으로 선과 도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초·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추상화된 도식은 더 많은 설명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된 도식화를 제안한 연구로는 김원미(2012), 김원미(2015)가 있는데, 그는 일본어의 어휘습득과 유의어 구분에 있어 도식화를 활용한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영어 및 일본어 교육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식화 교수법이 중국어 교학에서는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중국어의 유의어를 이미지 도식화를 통해 나타내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도식화를 통한 유의어 교수법이 어디까지 적용가능하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다음은 ‘across’의 전치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각각 도식화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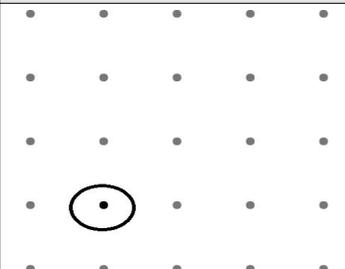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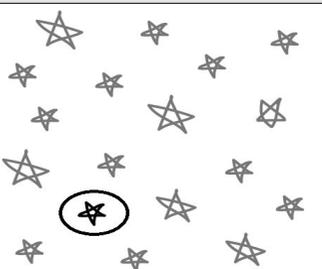
II. 의미구분을 위한 도식화 교수법 설계

외국어 교수법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어 교육에서 도식화 교육은 이미 발달한 방법으로 구상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을 통해, 담화장면이나 어휘를 학습하게 하는 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김원미(2015)에서는 그 예로 I.A. Richards의 『ENGLISH RESTART Basic』(1945)를 들고 있으며, 이 책은 도식화를 기본개념으로 채택한 것으로 어휘나 문형의 개념이해를 간단한 그림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김원미(2012)에서는 도식화를 통해 일본어의 유의어를 설명하는 교수법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의 중국어 교육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각’은 인간의 감각기능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영역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림을 활용한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시각을 활용하는 교수법은 직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외국어 학습에 가장 난제에 해당하는 유의어 교육에 도식화 교수법을 적용 및 활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모어화자의 중국어 학습에 있어 의미구분이 어려운 유의어를 중심으로 도식화 설계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하나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의미항목을 가지는데, 현대중국어의 경우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 및 여러 개의 의미 항목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유의어의 여러 의미항목 중에서 의미구분에 혼동을 느끼는 부분 및 개념만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도식화를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유사기능을 가지고, 또한 한국어의 해석 또한 유사하여 의미구분이 쉽지 않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도식화 설계를 위한 유의어의 의미 구분을 위한 개념은 趙新·李英(2012), 楊雪梅(2011), 楊奇洲·賈永芬(2013)와 같은 공구서를 토대로 도출한 것이며, 본고의 취지에 맞게 취사선택된 것이다. 적용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전체 중에서 일부를 지칭하는 대명사 : ‘每’, ‘各’

대명사 ‘每’와 ‘各’은 모두 한국어로 ‘매, 각(각기)’, ‘모두, 여러’ 등으로 해석되어 한국학생들의 경우 그 구분이 쉽지 않다. 먼저 도식을 살펴보자.

구분	每	各
도식		
예문	每個學校都放假。	這個超市有各種水果。
설명	전체 중에 임의의 하나 전체가 모두 같음을 나타냄	전체 중 각기 다른 개체를 나타냄. 다름을 강조

먼저 위와 같은 도식을 제시하고 도식이 의미하는 바를 학습자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 차이점을 스스로 포착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나서 교수자는 도식이 대명사 ‘每’와 ‘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즉, 대명사 ‘每’는 전체 중에 임의의 하나임을 나타내는 반면, ‘各’는 전체 중에 각기 다른 개체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대명사 ‘每’는 같음에 주안점이 있고, ‘各’은 다름에 주안점이 있다.

(2) 어떠한 과정을 거쳤음을 나타내는 동사 : ‘經過’, ‘通過’

어떠한 과정을 거쳤음을 나타내는 동사 ‘經過’와 ‘通過’의 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분	經過 (동사)	通過 (동사)
도식		
예문	考試經過了兩個小時繼續進行。	他通過了面試。
설명	'路過'의 의미를 나타내며, 과정을 강조함	'穿過'의 의미를 강조하며, 통과했음을 강조함

동사 ‘經過’와 ‘通過’는 모두 어떠한 과정을 거쳤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각각 나타내는 강조점이 다른데, ‘經過’는 위의 도식에서 보여주듯이 거친 과정 자체를 강조하고, ‘通過’는 어떠한 과정을 이미 통과했음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와 같은 유의어의 개념 구분은 여러 말의 설명보다 도식화를 제시해 주는 것이 확실히 효과적이다.

(3)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 ‘向’, ‘往’

전치사 ‘向’과 ‘往’의 사전적인 해석은 각각 ‘...을(를) 향하여’, ‘...을 향해’로 한국학생들이 사용상에 오류를 많이 발생시키는 전치사 중에 하나이다. 아래의 도식을 살펴보자.

구분	向	往
도식		
예문	向他說話。	往我這兒跑。
설명	동작 행위 대상 강조	위치 및 이동 방향을 강조

전치사 ‘向’과 ‘往’은 모두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지만, ‘向’은 동작 행위의 대상을 강조하고, ‘往’은 위치 및 이동 방향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위의 도식을 보면, ‘向’의 경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을 진하게 표현했고, ‘往’의 경우 강아지가 달러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진하게 나타내었다.

(4) 동작이 지나간 노선을 나타내는 전치사 : ‘沿著’, ‘順著’

전치사 ‘沿著’와 ‘順著’는 모두 동작이 지나간 노선을 나타낸다. 아래의 도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치사 ‘沿著’는 동작이 지나간 노선을 강조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 ‘順著’는 동작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아래의 도식을 보면 ‘沿著’는 노선을 진하게 표현했으며, ‘順著’는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살표를 진하게 표현하였다. 대상과 방향성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도식화 교수법이 확실히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차이로 인해, ‘沿著’의 뒤에는 구체적인 사물 및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주로 공기하여 쓰이는데, 예를 들어, ‘沿著大街’, ‘沿著海岸’ 등이 있다. ‘順著’는 추상적인 개념,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주로 공기하여 쓰이며, 예를 들어 ‘順著這個方向’, ‘順著他的目光’ 등이 있다. 유의어의 의

구분	沿著	順著
도식		
예문	沿著這條路一直走。	順著湖邊走。
설명	동작이 지나간 노선을 강조	동작의 방향성을 강조

미구분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통사적인 특성도 함께 학습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5) 발생의 빈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부사 : ‘常常’, ‘往往’

현대중국어에서 부사 ‘常常’과 ‘往往’은 모두 발생의 빈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도식을 나타낼 수 있다.

부사 ‘常常’은 여러 번 발생했음을 강조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 ‘往往’은 일종의 규칙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常常’의 시간은 ‘그저께(前天)-오늘(今天)-모레(后天)’로 설정하여 연속적이지 않은 날짜로 표현했고, ‘往往’은 규칙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그저께(大前天)-그저께(前天)-어제(昨天)’로 연속성의 날짜로 도식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날짜를 설정함으로써 교수자는 부사 ‘常常’과 ‘往往’의 용법도 함께 설명할 수 있는데, ‘常常’은 과거, 현재, 미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往往’은 과거에만 쓸 수 있음을 도식 하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식화를 통한 교수법은 유의어의 의미 구분뿐만 아니라, 통사 및 화용적인 측면까지 두루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구분	常常	往往
도식		
예문	他上班常常遲到。	我往往學習到十二點才睡。
설명	여러 번 발생했음을 강조, 과거, 현재, 미래 제한이 없음.	일종의 규칙성이 있음, 과거에만 사용함.

(6) 동작·사건 발생이 오래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사 : ‘剛’, ‘剛剛’

현대중국어의 부사 ‘剛’과 ‘剛剛’은 모두 동작이나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아래의 도식을 살펴보자. ‘剛’은 한 달이 지났음을 나타내고 ‘剛剛’은 한 시간이 지났음을 나타낸다. 즉, ‘剛剛’은 ‘剛’보다 시간이 더 짧음을 나타내고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나타내는 시간의 길이는 객관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시간임을 반드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부사 ‘剛’과 ‘剛剛’의 의미구분은 명확한 것으로 먼저 도식을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차이를 스스로 포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에 적합하다.

구분	剛	剛剛
도식		
예문	他今年二月剛開始學漢語。	他剛剛開始學漢語。
설명	-	‘剛’보다 시간의 길이가 더 짧음을 나타냄

(7) 사건이 결국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부사 : ‘終於’, ‘到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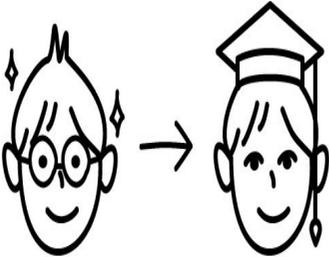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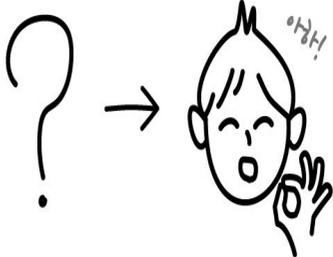
부사 ‘終於’와 ‘到底’는 모두 결국 사건이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의 의미구분을 나타내기 위한 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둘 다 부사로서의 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終於’는 적극적,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到底’는 소극적, 부정적인 의미를 주로 나타낸다. 그리

고 부사 ‘到底’는 주로 의문문에서 사용되므로 예문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가장 전형적인 의문문의 형태를 노출시켜 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인식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구분	終於	到底
도식		
예문	我終於取得好成績。	問題到底解決了。 我到底什麼時候取得好成績呢?
설명	적극적, 긍정적인 의미	소극적, 부정적인 의미

(8) ‘이전/처음’의 의미를 함의하며, 현재는 이미 변화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부사: ‘本來’, ‘原來’

구분	本來	原來
도식		
예문	他本來很聰明。	原來你是中國人呀。
설명	도리 및 이치에 따라 마땅히 그러함을 나타냄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냄

현대중국어의 부사 ‘本來’와 ‘原來’는 모두 ‘이전’ 또는 ‘처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미 변화가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이들의 의미의 차이점은 ‘本來’의 경우 이치에 따라 마땅히 그러하거나 그러해야 함을 나타내고, ‘原來’의 경우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발견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개념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품사에 속하지만 유사한 의미항목을 가진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先後’, ‘前後’를 도식화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의 도식을 살펴보자.

구분	先後	前後
도식		
예문	哥哥和我先後來到中國。	談判前後進行了5個多月... 春節前後你不要上班了。
설명	일정시간 내에 발생한 사건의 순서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정한 시간, 일정시간보다 조금 앞이거나 조금 뒤임

‘先後’, ‘前後’는 모두 일정시간 내에 발생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先後’는 부사이고, ‘前後’는 명사이다. 위의 도식을 살펴보면, 화살표는 시간의 축을 나타내고 직사각형은 일정 시간을 나타낸다. ‘先後’의 도식의 경우 일정시간 내에 발생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사각형 안에 ‘先’과 ‘後’가 차례로 위치해 있고, ‘前後’의 도식의 경우 두 가지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정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사각형이 진하게 강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일정시간보다 조금 앞이거나 조금 뒤임을 나타내기 위해 직사각형의 밖이면서 가까운 위치에 각각 ‘前’과 ‘後’가 위치되어 있다.

‘先後’와 ‘前後’의 도식의 경우 도식만 제시해 주었을 경우 학생들은 그 의도를 잘 유추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교수자의 설명이 진행되고 나서는 ‘先後’와 ‘前後’의 시간적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설명 진행 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도식이다. 진행되었던 부연 설명은 다음과 같다. ‘先後’는 일정시간 내에 발생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주어의 다른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주어의 같은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다. 제시된 예문은 각각 ‘他先後出訪過十多個國家.’와 ‘哥哥和我先後來到中國.’이다. ‘前後’가 시간을 가리킬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談判前後進行了5個多月...’이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시간보다 조금 앞이거나 조금 뒤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春節前後你不要上班了.’이다.

이상으로 유의어의 의미구분을 위해 도식화를 설계해 보았다. 도식화 설계에 최적화된 것이 있는가 하면, 도식표현이 쉽지 않은 것도 있었다. 도식을 제시해 주면 학습자들이 바로 이해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연 설명이 진행된 후에야 이해가 되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도식화 교수법은 중국어의 유의어 교육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그 활용 가치 및 효과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Ⅲ. 도식화를 활용한 문법교육

2장에서 중국어의 어휘교육에서 도식화 교수법의 적용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타언어의 교육에서도 도식화 교수법은 어휘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도식화 교수법을 현대중국어의 문법 교육에 적용해 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국어의 문법교육은 크게 허사의 운용과 어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간부사, 접속사, 전치사를 대상으로 도식화 교수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어순 교육에 있어 도식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1) ‘진행’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 ‘正’, ‘在’, ‘正在’

현대중국어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표지로 시태 부사 ‘正’, ‘在’, ‘正在’가 있는데, 이들의 문법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교재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먼저 아래 도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구분	正	在	正在
도식			
예문	媽媽給我打電話的時候, 我正學漢語。	我在學漢語。	我正在學漢語。
설명	동작이 진행되는 그 순간을 의미함	동작의 진행 및 상태의 지속을 의미함	‘正’과 ‘在’가 합쳐진 시간개념을 나타냄

박성하(2009)에 의하면, ‘正’은 동작이 진행되는 시점(時點)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在’의 경우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이 진행됨을 나타내고 ‘正’보다 그 시간의 범위가 더 길다. 즉, 위의 도식을 보면 아래의 ‘T(time)’는 시간의 축을 나타내고 ‘正’은 진행되는 구간 안의 한 시점 다시 말해 한 순간을 포착함을 나타낸다. ‘在’의 경우 동작 및 상태가 진행된 구간 전체를 강조하고 있으며, ‘正在’의 경우 앞의 두 시간부사가 합쳐진 시간개념으로 앞의 두 도식이 합쳐진 것을 표현한 것이다.

현대중국어의 ‘시태(상)’에 대한 시간개념은 ‘시제’에 익숙한 한국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으로 학습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진행 및 지속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正’, ‘在’, ‘正在’의 차이점을 위와 같은 도식화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학습시킬 수 있다.

(2)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 ‘只有……才……’와 ‘只要……就……’

현대중국어의 접속사 교육에서도 도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只有’와 ‘只要’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분	只有……才	只要……就
도식		
예문	只有這把鑰匙才能打開門。	只要有一把鑰匙就能打開門。 只要按密碼就能打開門。
설명	필요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일한 조건임을 의미한다.	충분조건으로 하나의 전제가 충족되면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只有’는 필요조건으로 유일한 조건임을 나타내므로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로 이미지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고, ‘只要’는 충분조건으로 하나의 전제가 충족되면 그 결과 및 결론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므로 열쇠와 비밀번호라는 복수의 전제가 가능하고, 열쇠를 선택하든 비밀번호를 선택하든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도식화를 활용하면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 더 빠르고 명

확하게 학습시킬 수 있다. 또한 예문을 통해 고정결합을 하는 부사 ‘只有’와 ‘才’ 그리고 ‘只要’와 ‘就’를 함께 제시해 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문에서 해당성분을 색깔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3) ‘위치 및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 ‘在……上/中/下’

현대중국어의 전치사 교육에서도 도식을 활용할 수 있다. ‘위치 및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在……上/中/下’를 사례로 들어 살펴보자. 먼저 각 문법성분들의 용법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아래와 같은 표를 제시한다.

구분	문법적의미	해당 이모티콘			
在……上	사물의 위(위쪽), 일정 범위 내, 어떤 방향				
在……中	사건 또는 상황이 일정 과정 중에 있음, 동작 행위의 범위, 일정 시간이내				
在……下	상황이나 사건의 전제와 조건				

위의 표를 제시하고 ‘在……上/中/下’의 사이에 들어갈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학생들로 하여금 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해 준다. 유입물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칠판에 직접 붙이는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桌子(테이블)	 生活(생활)	 工作(일)	 學習(공부)
 比賽(경기)	 研究(연구)	 電話(전화)	 調查(조사)
 條件(조건)	 壓力(스트레스)	 自己的努力 (본인의 노력)	 老師的幫助 (선생님의 도움)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하면서, 문법성분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첫째, 이모티콘(emoticon)을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

- 사전 학습 단계로 자유롭게 배치하면서 해당 문법항목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다. 하나의 그림은 한 곳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같은 그림이라도 학생들마다 각기 다른 항목에 배치시키는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했다.

둘째, 학생들의 배치가 끝나면 교수자와 학생이 하나씩 같이 넣어본다.

- ‘桌子’는 ‘在桌子上’과 ‘在桌子下’가 모두 가능하다.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 ‘在工作上(他在工作上很有潛力。)', ‘在工作中2)(你在工作中一定要認

2) ‘在工作上’과 ‘在工作中’을 말뭉치(BCC)에서 조사해 본 결과, 각각 1901개와 5960개의 예문이 검색되었다. 각 성분들의 사용빈도율을 알려주는 것도 학습자들이 해당성분으로 학습하고 활용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CC는 북경어언대학한어 빅데이터 및 교육 기술 연구소(大數據與教育技術研究所, Institute of Big Data and Education Technology)에서 구축한 말뭉치

真。)이 모두 다 가능함을 알려준다. 더불어 확장된 예문을 제시해주고 두 가지 예문의 차이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설명을 진행한다.

셋째,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모티콘을 해당 위치에 배치시킴으로써, 해당 문법 항목과 공기율이 높은 어휘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바람(wish, hope)’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 ‘想’과 ‘要’

다음으로 동적양태(dynamic modality)의 ‘바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想’과 ‘要’의 구분을 위한 도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들의 사전적 해석을 살펴보면, ‘想’은 ‘바라다’, ‘희망하다’이고, ‘要’는 ‘희망하다’, ‘바라다’, ‘원하다’로 사전의 해석만으로는 의미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두 조동사가 ‘바람’의 양태³⁾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고 그 강조점이 바로 각 양태조동사들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성하(2015)에 의하면, 조동사 ‘要’는 동적양태(dynamic modality), 당위양태(deontic modality),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를 모두 나타낼 수 있고 이들의 의미구분은 일도양단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각각의 양태의미는 문법화의 과정에서 서로 연결고리로 얽혀 있는 것으로 현대중국어 조동사 ‘要’의 동적양태는 당위양태 의미도 일부 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양태조동사 ‘想’과 ‘要’

(北京語言大學漢語語料庫)로 그 규모는 약 150억 자에 이르고, 신문(20억), 문학(30억), 블로그(30억), 과학기술(30억), 종합(10억), 고대한어(20억)등의 다양한 영역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 현대 사회 언어생활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의 말뭉치 자료이다.

3) 양태(modality)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서 Lyons(1977)에서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기술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범주라고 언급하였고, Palmer(2001)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관점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범주이라고 언급하였다.

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想	要
도식		
예문	我想去北京。	我要去北京。
설명	소망 및 계획을 강조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위의 도식을 보면 조동사 ‘想’의 경우 화자의 소망 및 계획을 표현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要’의 경우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에 강조점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예문 ‘我想去北京.’와 ‘我要去北京.’의 두 예문의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 있어 조동사 ‘要’의 문장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음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5) 유사 의미를 가진 부사의 어순 교육 : ‘不得不’와 ‘只好’

다음으로 어순 교육에 도식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현대중국어는 굴절이나 형태변화가 발달되지 않은 관계로 문법역할의 많은 부분을 어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문법교육에 있어서, 어순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식화를 어순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적용의 실례로 부사 ‘不得不’와 ‘只好’를 들어 살펴보면, 현대중국어의 부사 ‘不得不’와 ‘只好’는 둘 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로 해석되어 이들 유의어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문법

특성 특히, 어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구분		不得不	只好
도식	부정사	不得不 + <input type="text"/>	只好 + <input type="text"/>
	주어	<input type="text"/> + 不得不 不得不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只好 只好 + <input type="text"/>
예문	由於家庭經濟原因, 我不得不退學。		實在太貴了, 我只好不買了。 現在他走啦, 只好我來完成。
선택 항목	<input type="text"/> 부정사	<input type="text"/> 부정사	<input type="text"/> 주어

부사 ‘不得不’와 ‘只好’의 어휘 의미를 설명한 후, ‘부정사(否定詞)’와 ‘주어’의 위치에 있어 ‘不得不’와 ‘只好’가 차이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위의 표를 제시해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항목에 있는 내용을 직접 배치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의 활동이 끝나면, 교수자와 학생이 직접 정답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각 성분들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다.

엄밀히 따지면 위의 표는 그림으로 표현된 도식은 아니지만, 어순의 위치를 직접 해당 문법성분의 앞 혹은 뒤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교구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적이었다. 표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고, 또한 완성된 시각적인 자료는 보다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저장되는 강점을 가진다. 교육현장에서 이 과정을 실행해 본 결과, 텍스트와 교수자의 설명만으로 교육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문법 성분의 어순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맺음말

모든 언어에는 유의어가 존재한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많은 적용 사례와 해당 언어의 문화권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하지만,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학습과정에서 의미구분이 쉽지 않아 혼란을 겪으며, 또한 이로 인해 언어의 활용단계에서 많은 오류 문장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외국어 교육에서 유의어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중요한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유의어 연구마다 그 범위와 대상은 각기 다를 수 있고 다르겠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 의미 항목 간의 구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모어화자가 중국어 학습 시에 어려움을 겪는 유의어를 대상으로 의미구분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지 도식화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대명사 ‘每’와 ‘各’, 동사 ‘經過’와 ‘通過’, 전치사 ‘向’과 ‘往’, ‘沿著’와 ‘順著’, 부사 ‘常常’과 ‘往往’, ‘剛’과 ‘剛剛’, ‘終於’와 ‘到底’, ‘本來’와 ‘原來’를 대상으로 각각의 유의어를 구분할 수 있는 핵심 이미지를 도출하고, 의미 및 개념 구분을 위한 도식화 설계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도식화 교수법의 영역 확대를 위해 기존의 어휘 교육 위주에서 더 나아가 현대중국어의 문법교육에 도식화 교수법을 적용해 보았다. ‘진행’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正/在/正在’,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只有……才’, ‘只要……就’, ‘위치 및 방면’을 나타내는 전치사 ‘在……上/中/下’, ‘바람’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想’, ‘要’의 문법개념의 구분을 위한 도식화 설계를 진행하였다.

도식화 교육법의 적용이 가장 효과적인 분야는 진행상(‘正’, ‘在’, ‘正在’)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여러 말의 설명보다 도식을 보여주고 차이점을 유추해 내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차이점을 포착하게 되고, 아울러 도식으로 각인된 이미지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사 ‘經過’와 ‘通過’의 도식과 전치사 ‘沿著’와 ‘順著’의

도식처럼 의미표현이 제대로 잘 반영되고 도식을 통해 이해도가 충분히 높은 부류가 있는가 하면, 부사 ‘本来’, ‘原来’의 도식의 경우처럼 교수자의 설명이 반드시 부연되어야 하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식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사 ‘常常’, ‘往往’의 도식 그리고 부사 ‘终于’, ‘到底’의 도식처럼 의미구분 뿐만 아니라, 문법지식과 사용환경까지 동시에 도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또한 본고에서 도식화 교수법을 중국어에 적용시켜 본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식화 교수법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여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이를 교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유사 의미를 가진 부사 ‘不得不’와 ‘只好’의 어순 교육에서도 도식화를 적용해 봄으로써 도식화 교수법은 어휘의 의미 교육뿐만 아니라, 문법교육 및 어순 교육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도식화 교수법은 유의어의 의미구분 뿐만 아니라 통사 및 화용적인 측면까지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중국어 교육에서 다방면으로 적용을 시도해 보아도 좋을 것이라 확신한다.

도식화를 활용하는 교수법은 간단한 교구로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고, 또한 교수자가 도식 제시의 시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도식을 이해하고 설명해 내려는 사전학습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단일 방향의 교육이 아닌, 소통하고 참여하는 쌍방향의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도식화 교수법은 아직 중국어 교육에서는 많이 시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의어(表意語)인 중국어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교수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중국어의 학습에 대한 수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기존의 대학에서의 전공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와 교수법에서 더 나아가, 누구나 쉽게 중국어를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수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도식 표현이 많이 미흡하고, 중국어 교육에 전면적으로 적용해 보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어 교수법의 도약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써 도식화 교수법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1. Hong Yeonok. “Comparative Analysis of ‘yuanyi(願意)’ and ‘xiwang(希望)’ in modern chinese synonyms”. *Chinese Literature* 83, (2015).
2. Jung Eun. “A Study on the Meaning Change of ‘Across’ from the Viewpoint of Grammarization”. *Linguistic Science Research* 25, (2003).
3. Kim Hyunchul&Kim Jiwon. “Comparative Analysis of Modern Chinese synonyms ‘zou(走)’ and ‘qu(去)’”.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10, (2009).
4. Kim JeongPil. “Analysis of Morphology of Place Thesaurus in Thesaurus”. *Chinese Literature* 64, (2013).
5. Kim Wonmi. “Study on Schematic teaching method for distinguishing synonyms”. *Japanese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 (2012).
6. Kim Wonmi.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Image Schemes for Improvement of Japanese Vocabulary Acquisitio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31, (2015).
7. Lee Heejoo. “A Comparative Analysis of Modern Chinese ‘ai(愛)’, ‘gaoxing(高興)’ and ‘xihuan(喜歡)’—When to Use the Meaning of ‘Likes’”. *Chinese Education and Research* 17, (2013).
8. Lyons, J. *Semantics(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9. Palmer, F.R. *Mood &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0. Park Dukjoon&Park Junggu&Oh munui. "The study of modern chinese synonyms". *Chinese Language Research* 12, (2000).
11. Park Dukjoon. "Study on Chinese Noun Thesaurus-Focusing on 'Ability'". *Chinese Language Research* 13, (2001).
12. Park Dukjoon. "A Study on Chinese Adverbial Thesaurus, changchang(常常), jingchang(经常)". *Chinese Language Research* 27, (2008).
13. Park Dukjoon. "Study on the conjunction of 'haishi(還是)', 'huozhe(或者)', 'yaome(要麼)'". *Chinese Literature* 53, (2015).
14. Park Dukjoon. "Study on the adverb synonyms 'yizai(一再)', 'lvcil(屢次)', 'zaisan(再三)'". *Chinese literary magazine* 56, (2016).
15. Park Jaeseung. "Chinese synonyms teaching method improved method research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ost Occupancy Evaluation of the Chinese Language Evaluation". *Chinese Language Chinese Literature* 43, (2008).
16. Park Seongha. *A Study on Grammatical Features of Temporal Adverb '正(zheng)' in Modern Chinese*.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17. Park Seongha. *A study on modality function and grammaticalization of '要(yao)' in modern Chinese*.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5.
18. Park Sookyung&Cho Kanghee. "Comparison of the verbs 'Hiku(ひく)' and 'Tooru(とる)' using image schema, Contrast". *Studies in Japanese Literature* 55, (2005).
19. Shin Sooyoung. "A Study on the Meaning of 'yidian(一點)' and 'yixie(一些)', Discriminative Information of Synonyms through Syntactic Considerations". *Chinese Literature* 30, (2009).
20. Yang Qizhou&Jia Yongfen. *Hanyu 800Xuci Yongfa Cidian(Chinese*

- 800 Vocabulary Usage Dictionary).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Press, 2013.
21. Yang Xuemei. *Hanyu Jinyiciyu Bianxi(An Analysis of Chinese Synonyms)*. Peking University Press, 2011.
22. Zhan grong. “Duiwai Hanyu Jiaoxue Zhong Jinyici Hunxiao Xianxiang Fenxi-Yi Hanguo Xuesheng Weizhu”(An Analysis of the Confusion of ‘Synonyms’ in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A Case Study of Korean Students).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Research* 19, (2014).
23. Zhao Xin&Li Ying. *Xue Hanyu Jinyici Cidian(Learn Chinese Dictionary of Synonyms)*. Commercial Press, 2012.

< 참고문헌 >

1. 홍연옥, <현대중국어 유의어 ‘願意’와 ‘希望’의 비교 분석>, 《중국문학》 83집, 2015년.
2. 정 은, <문법화의 관점에서 본 Across의 의미 변화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25집, 2003년.
3. 김현철·김지원, <현대중국어 유의어 ‘走’와 ‘去’의 비교 분석>, 《중국어교육과연구》 제10호, 2009년.
4. 김정필, <유의어 교학과 장소유의어의 형태구조 분석>, 《중국어문학》 64호, 2013년.
5. 김원미, <유의어 의미구분을 위한 도식화 교수법에 대한 연구>, 《일본어교육연구》 4권 0호, 2012년.
6. 김원미, <일본어 어휘습득 향상을 위한 이미지 도식화 교수법에 대한 연구>, 《일본어교육연구》 31권 0호, 2015년.
7. 이희주, <현대중국어 ‘喜歡’, ‘愛’, ‘高興’의 비교 분석-“좋아하다”는

- 의미로 활용될 때), 《중국어교육과연구》 제17호, 2013년.
8. Lyons, J., 《Semantics(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9. Palmer, F.R., 《Mood &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0. 박덕준·박정구·오문의, 〈현대 중국어 유의어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Vol.12, 2000년.
 11. 박덕준, 〈중국어 명사유의어연구-“능력”류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Vol.13, 2001년.
 12. 박덕준, 〈중국어 부사유의어 “상상(常常), 경상(經常)”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Vol.27, 2008년.
 13. 박덕준, 〈선택접속사유의어 “환시(還是), 혹자(或者), 요마(要麼)” 연구〉, 《중국어문학지》 Vol.53, 2015년.
 14. 박덕준, 〈부사유의어 ‘일재(一再), 누차(屢次), 재삼(再三)’ 연구〉, 《중국어문학지》 Vol.56, 2016년.
 15. 박재승, 〈중국어 유의어 교육 방법 개선안 연구-중국어 능력 평가의 사후결과분석을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43輯, 2008년.
 16. 박성하, 《현대중국어 시대부사 ‘正’의 어법특성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년.
 17. 박성하, 《현대중국어 ‘要’의 양태기능과 문법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년.
 18. 박수경·조강희, 〈이미지도식을 이용한 동사 「하₁」와 「하₂」의 비교, 대조〉, 《일어일문학연구》 55권 1호, 2005년.
 19. 신수영, 〈“일점(一點)”과 “일사(一些)”의 의미, 통사론적 고찰을 통한 유의어의 변별 정보 연구〉, 《중국어문학지》 Vol.30, 2009년.
 20. 揚奇洲·賈永芬, 《漢語800虛詞用法詞典》,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3年.
 21. 楊雪梅, 《漢語近義詞語辯析》, 北京大學出版社, 2011年.
 22. 章 蓉, 〈對外漢語教學中“近義詞”混淆現象分析-以韓國學生爲主〉, 《중

국어교육과연구》 제19호, 2014년.

23. 趙新·李英, 《學漢語近義詞詞典》, 商務印書館, 2012年.

< Abstract >

This study is to set up a main image for Chinese synonyms for meaning classification in order to help the Korean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in learning them and to suggest the use of image diagrams as a method to teach them.

First, the main images were drawn for the pronouns ‘每(meì)’ and ‘各(gè)’, verbs ‘经过(jīngguò)’ and ‘通过(tōngguò)’, prepositions ‘向(xiàng)’ and ‘往(wǎng)’, ‘沿着(yánzhe)’ and ‘顺着(shùnzhē)’, adverbs ‘常常(chángcháng)’ and ‘往往(wǎngwǎng)’, ‘刚(gāng)’ and ‘刚刚(gānggāng)’, ‘终于(zhōngyú)’ and ‘到底(dàodǐ)’, ‘本来(bēnlái)’ and ‘原来(yuánlái)’ and the design of the diagram was carried out for classifying meaning and concept. Next, the design of the diagram was carried out to classify grammatical concepts such as adverbs for time, which shows ‘in progress’, conjunctions, representing ‘condition’, preposition, representing ‘location and direction’ and auxiliary verbs, representing ‘wish’.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using diagrams in word order teaching for synonym adverbs was examined.

In conclusion, this paper examined that the teaching method using diagrams can be used not only in vocabulary education but also in grammar educ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teaching method using diagrams was a great help in improving students' understanding.

Key Words : 유의어(Synonym), 도식화(diagram), 중국어 교수법(Chinese teaching method), 어휘교육(vocabulary education), 문법교육(grammar education)

